

협회 동정

● 제2차 이사회 개최

한국사료협회(회장 조남조)는 지난 2월 22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구제역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이날 오후에 개최된 정기총회에 상정될 사업계획 및 수진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 북미곡물수출협회 게리 마틴 회장 일행 본회 방문



▲ NAEGA측에서 수분측정기를 기증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 조남조 회장(右)과 게리 마틴 회장이 수분측정기 앞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북미곡물수출협회(North American Export Grain Association, 이하 NAEGA) 게리 마틴(Gary Martin)회장과 주한미국대사관의 제랄드 스미스(Gerald Smith)농무관 등 관련 일행이 본회 조남조 회장을 예방했다.

이번 방문에서 지난해 7월 30일에 체결된 한국사료협회와 NAEGA간의 “2010년 옥수수 품질 평가 프로젝트(2010 KOREA-US Corn Quality Assessment Project)” 협약에 따라 그 동안 이루어진 공동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확인하였고, 양측 협회의 우호·협력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곡물 수분 측정기(GAC 2100b)의 기증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NAEGA측의 제안으로 선적이후 품질변이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3개 모선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본회 조남조 회장과 NAEGA 게리 마틴 회장의 서명으로 “2010년 한미 옥수수 품질평가 프로젝트” 협약을 지난해 7월 30일 체결한 바 있다.

● 2011년도 시무식 개최



▲ 시무식 모습.



▲ 조남조 회장(右)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고 있는 이용희 과장.

본회는 지난 1월 3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조남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 발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사료산업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며 “구제역의 조기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 기획조사부 이용희 과장이 축산·사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업계동정

● (주)도드람비엔에프, (주)도드람비티

‘(주)팜스토리 한냉’으로 회사명 변경

(주)도드람비엔에프와 (주)도드람비티가 지난 1월 1일부로 ‘(주)팜스토리 한냉’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 CJ제일제당(주)

신사옥으로 이전

CJ제일제당(주)이 지난 1월 10일부로 중구 쌍림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쌍림동 292(스마트플렉스 빌딩 13층)

● (주)삼양사

사료기획팀 팩스번호 변경

(주)삼양사 사료기획팀의 팩스번호가 (02)740-7400번으로 변경됐다.

● (주)하림

대표자 변경

(주)하림의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 김홍국, 이문용 → 이문용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장학생 35명에게 장학금 지원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 김기용, 카길애그리퓨리나 명예회장)은 지난 2월 18일 장학생 35명에게 2011년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장학금을 전달했다. 매년 실시되던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는 FMD와 HPAI로 인해 취소하고, 장학금은 개별로 전달하였다.

동사 문화재단은 지난 1999년부터 국내외 축산관련 분야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 축산관련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장학생은 고등학생 23명, 대학생 7명, 대학원생 5명으로 총 7천5백만 원이 35명의 인재 양성에 쓰여지게 된다. 1999년 이래 총 344명의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김기용 이사장은 “기업의 사회 봉사와 공헌,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업이 사업으로 거둔 이익을 함께하는 사회와 나누는 때, 많은 보람을 느낀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에 투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 앞으로 장학생으로 항상 비전을 가지고 성장시켜, 한국 축산의 발전, 나아가 사회에 함께 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서신으로 전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한국 축산의 발전에 우수한 인재 양성이 중요하며, 장학금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주)트루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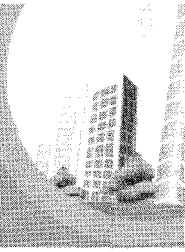
본사 이전

(주)트루라이프는 지난 2월 12일 다음과 같이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3((주)트루라이프 신사옥)

△ 대표전화 : (031)960-3000

△ 팩스번호 : (031)907-1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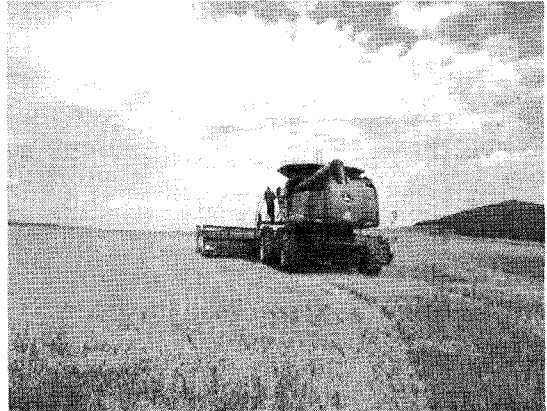


● (주)팜스토리 한냉

해외곡물 생산량 1만톤 돌파



▲ 콩 수확 장면.



▲ 귀리 수확 장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팜스토리 한냉의 해외 영농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팜스토리 한냉은 자회사인 서울사료가 러시아 연해주에 조성한 농장의 누적 곡물 생산량이 최근 10,000톤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08년 ‘에코호즈’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서울사료는 현재 미하일로프카군(그레고리 농장 - 1890ha), 우수리스크군(바카뜰까 농장 - 3000ha), 항카군(항카플러스 농장 - 6000ha) 등 3곳에서 콩, 옥수수, 귀리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 3개 농장의 총 면적은 10,890ha(1억890만㎡)로 실제 여의도 면적(295만㎡)의 37배에 달한다.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 2009년 237톤으로 출발한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 항카플러스 농장 설립 및 재배종 확대로 전년 대비 40배가 넘는 9,938톤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콩 9000톤, 옥수수·귀리 5000톤, 티모시 건초 등 25,500톤을 생산해 일부는 한국으로 수출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업체와의 계약재배가 진행되고 있다.

팜스토리 한냉이 이처럼 해외농장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사료의 원료 곡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다. 팜스토리 한냉과 서울사료 등 계열사의 전체 사료 생산량은 100만톤(2010년 기준)으로 이중 대부분의 필요한 사료원료와 곡물을 해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현재로선 식용만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 사료용 생산을 통해 일정 부분 자체 조달 및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울러 곡물 수확 후 남는 부산물을 현지에서의 소 사육(1200여두)에도 활용할 수 있어 복합영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최상열 대표는 "팜스토리 한냉은 계열사인 현대서산영농법인이 100만평(330만㎡) 이상의 대형 농장 운영경험 및 노하우를 갖고 있어 영농 경험 없이 해외농장 개발에 나선 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철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연해주에서 국내로 철도 운송이 가능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올텍바이오키리아(주)

최첨단 녹조류 공장 \$1400만 달러에 인수

글로벌 동물건강영양기업인 올텍이 미국 윈체스터(Winchester)에 위치한 마텍 생명과학기 업으로부터 \$1400만 달러에 최첨단 녹조류 발효공장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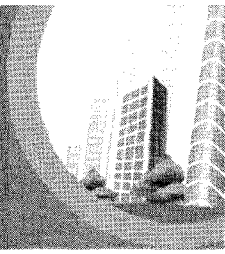
"올텍이 가장 최근에 기술플랫폼으로 제시한 녹조류 발효분야는 식품, 사료 그리고 친환경 대체연료로,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올텍의 설립자이자 대 표자인 닥터 라이언스(Dr. Pearse Lyons)는 말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이것은 세계적으로 좀더 재생 가능한 음식 과 에너지 공급원의 하나로서 인간과 동물건강영양 모두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한 이 공장시설들은 향후 18개월 동안 윈체스터에서 크게 확장하 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분야가 2015년에 올텍을 \$1 billion의 기업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올텍 윈체스터(Alltech Winchester)로 불리게 될 이 시설은 백만리터 이상의 발효량을 더 생산 할 예정이며 북아메리카에서는 5번째로, 세계에서는 10번째 생산시설이 될 것이다. 올텍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1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120여개 나라에 제품을 판매하 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천연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인 녹조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켜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이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이것은 특히 흥미 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올텍은 서로 다른 다양한 녹조류를 추출하는 생성공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텍의 응용품질검사 총책임자인 베키 티몬스(Becky Timmons)는 말했다.

"녹조류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유기체중의 하나이며 제품개발 잠재가능성은 상상을 초 월할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올텍은 현재 켄터키주에 가장 큰 이산화탄소 녹조류 파일럿플랜 트(pilot plant)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새로운 인수는 우리의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제시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녹조류는 매우 가치 있는 사료제품, 바이오 연료, 에탄올생산 등으로 사용 되어질 것이며 실험실과 파일럿플랜트 발효공장시설은 특히 제품의 생산성과 개발공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발효조안에 있는 자동화 조정 모니터 시스템은 새로운 것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발효과정공정들에도 올텍에게 더 많은 이점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천하제일사료

QR코드로 스마트 마케팅 개시

천하제일사료는 최근 양돈 신제품 ‘FD (Farm Desing, 농장디자인)’와 ‘베이스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사료업계 최초로 QR(Quick Response)코드를 적용해 동종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으나 사료업계에 이를 적용한 것은 천하제일사료가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천하제일사료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업계 최초로 QR코드를 적용함에 따라 사료업계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확산이 예견된다.

QR코드는 스마트폰의 ‘바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읽을 수 있는 일종의 바코드다. 그러나 기존 숫자만 인식하는 바코드와 다르게 문서 인식 바코드로 개인 명함의 정보는 물론 홈페이지, 동영상 링크 등을 저장해 보다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천하제일은 양돈신제품 ‘FD’와 ‘베이스 시리즈’ 지대에 이 QR코드를 넣어 출시함으로써 이 코드를 읽으면 천하제일 모바일 웹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게 했다.

천하제일사료 양돈PM인 민승기 부장은 “스마트폰은 앞으로 축산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QR코드 및 스마트폰이 농가에 더욱 확산된다면 모바일 웹 이벤트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우성사료

축산인 희망 더하기 캠페인 전개

(주)우성사료가 구제역 조기 종식과 구제역 이후 피해 축산인의 재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성사료는 지난 2월 8일 ‘다시 뛰는 축산인’이라는 힘찬 슬로건을 내걸고 축산인 희망 더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구제역으로 고통 받고 실의에 빠진 축산인에게 희망을 주고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축산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성사료측의 설명이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사업재개 입식 프로그램지원 ▲피해 축산인 경영안정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구제역 방역용품 및 활동지원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등이다.

POST구제역 테스크포스팀을 총괄하고 있는 표광수 영업총괄본부장은 “우리의 자식과 같은 가축을 차가운 땅에 묻어야 했지만, 축산의 희망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며 “축산인 희망 더하기 캠페인을 통해 축산인 모두가 힘을 얻어 구제역을 조기에 극복하고 축산 선진국으로의 큰 걸음을 내딛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선진

식육유통BU·육가공BU 목표달성 전진대회 개최

(주)선진이 식육유통BU·육가공BU의 2011년 목표달성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주)선진의 식육유통BU(BU장 이익모)와 육가공BU(BU장 전원배)는 지난 1월 7일과 14일 각각 2011년 목표달성 전진대회를 가졌다.

선진은 2009년 vision 2013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2010년 첫 번째 마당인 Dream Festival을 개최했다. 이어 올해는 꿈을 위해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하며 두 번째 마당인 Action Festival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제역으로 전 사업장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식육유통BU와 육가공BU가 선진 서울사무소에서 각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식육유통BU는 원료돈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11년 목표 달성의 의지를 함께 공유했다.

이범권 선진 대표는 “2011년 초부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성을 만든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스피드 있게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직원들의 의지를 북돋았다.

● (주)팜스코

서부공장, 무재해 10배(3천8백일) 달성 쾌거

(주)팜스코 서부공장이 무재해 10배를 달성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사고 없이 공장을 운영한 것이다.

200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26일까지 무려 3천800일 이다.

이러한 무재해 3천800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부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맡은바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서부공장 생산부문장을 맡고 있는 오종철 부장은 “팜스코 서부공장을 앞으로 영원히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팜스코 사료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윤식 상무는 “팜스코 사료 생산공장은 무재해 달성에 매진하며, 구제역 또한 하나의 재해로 인식하여 공장내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인원, 공장 주변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구제역 차단에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아원(주)

양돈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동아원(주) 김성민 사료BU장은 지난 1월 5일 대한양돈협회를 방문,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써달라면서 양돈산업 발전기금 1천만원을 이병모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성민 BU장은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양돈농가의 아픔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회사차원에서 구제역 확산방지에 전력을 하고 있다”며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구제역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동아원이 기탁한 발전기금은 구제역 조기종식과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 왼쪽부터 양돈협회 김건호 부회장, 이병모 회장, 동아원 김성민 BU장, 김남식 상무,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

● 두산생물자원(주)

‘상생하는 기업정신’ 실천...온정나눔

전직원이 모은 성금 기반 이웃사랑 나눔
동참

“사람이 미래다”

이는 두산그룹의 인재상으로 두산생물자원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팀 ‘안다미로’를 창단, 따뜻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안다미로’는 ‘차고 넘치도록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순수 우리말이다. 앞으로 ‘안다미로’는 ‘나눔의 실천’이라는 기업사회공헌철학 아래 주변에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다미로’는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진 성금을 기반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두산생물자원’ 전 직원이 사회공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두산그룹은 이미 ‘인재의 성장과 자립’을 목표로 인재를 성장시켜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사회 공헌 방식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미래를 가능케 하는 직접 교육 사업, 직접 교육을 강화해 주는 교육 인프라 지원, 교육 외 분야(환경, 문화, 의료 등)에서 지역 사회, 마케팅 및 소외 계층 대상의 지역사회 Needs 충족으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실행되고 있다.

‘안다미로’팀의 단장이자 두산생물자원의 CEO인 박근호 대표는 “안다미로팀은 두산의 인재철학인 2G정신, 즉 ‘Growth of People, Growth of Business’에 맞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및 청소년 또는 다문화가정의 자립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할 계획”임을 설명한다.

박 대표는 이어 “회사내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에도 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안다미로팀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두산생물자원은 사회공헌팀 ‘안다미로’ 결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 아래 가운데 박근호 대표)